



무주경찰서, 잼버리 참가 대원 안전 지원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지난 8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대회에 참가한 인도 대원 144명의 무주군 철천면 반딧불청소년수련관 숙소 이동을 지원했다. 인도 스카우트 대원들은 11일까지 3박4일 동안 반딧불청소년수련관에서 머물 예정이다.

무주경찰서는 인도 대원들이 무주군에 머무는 동안 숙소 주변 순찰, 교통관리, 전답요원과의 핫라인 구축 등 안전지원을 실시하고, 청소년수련관 주변에는 정복경찰관 및 외근 형사를 배치하여 만약의 비상시태에 대비하고 있다.

남기재 서장은 “제6호 태풍 카누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고 무주군 또한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잼버리 대원들이 무주군에 머무는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자”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서, 흥기난동 범죄대응 특별치안활동 전개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특별치안활동 추진 TF’를 구성 흥기난동 범죄대응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치안활동은 관내 터미널, 마트 등 다중운집 장소 8개소를 선정해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해 순찰차와 형사기동차 등 경찰력을 배치 단력순찰 및 거점 근무를 강화하고 통합 관제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CCTV 모니터링을 강화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 치안활동 기간 관내 자율방범대원 486명, 시민경찰 77명 등 협력단체와 함께 가시적 순찰활동을 통한 협력치인을 펼치고 있다. 김철수 서장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흥기를 휘두르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인 만큼 예방과 대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주민 안전을 지키는데 경찰력을 집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흥기 난동 현장대응능력 향상 훈련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는 8일 20대 후반 남성이 장수공용버스터미널에서 흥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상황을 가정한 강력범죄 현장대응능력 향상 훈련(FTX)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다중밀집지역 버스터미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흥기를 휘두르는 정신이상자를 겸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덕교 서장은 “최근 흥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 사회 전반에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출동과 제압,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장 중요해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훈련 했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태권도로 봉사하는 마음 가져야”

태권도진흥재단, 배종신 전 이사장 초청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 특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배종신 전 이사장을 초청해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8일 특강을 가졌다.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특강에는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단 및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특강에서 배 전 이사장은 태권도 발전사를 비롯해 태권도 성지 건립 추진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태권도원이 어떻게 탄생하고 건립되었는지, 향후 태권도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재단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놀 태권도 발전을 위한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보다 한 층 높은 만족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태권도원을 찾는 국민들과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새로운 태권도 문화와 태권도 진흥 사업을 통해 만족감을 선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배 전 이사장께서 재단과 태권도원의 기반을 마련해주신 덕



분에 오늘날 우리가 국가 태권도 활성화라는 입문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며 “오늘 특강을 통해 재단과 태권도원 나아가 태권도 발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배종신 전 이사장은 제2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체육국장,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 기획조정국장, 문화관광부 차관 등을 거쳤고 태권도진흥재단 3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태권도원 건립 공사와 개원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마을 건강한 여름나기 선풍기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일, 7일 여름철 폭염사고를 예방하며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검산동, 신풍동 치매안심마을에 선풍기 5대를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선풍기는 LG전자 베스트샵 김제점에서 사회공헌 활동 사업 일환으로 기탁하여 진행되었다.

김민호 LG전자 대표는 “장마철과 태풍 등 무덥고 습한 날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품 지급 담당자는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하여 폭염 대응 건강관리 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검산 주공 1단지 아파트 내 모정 3군데와 신풍동 성서마을회관에 선풍기를 전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마령면민의 장 2개 부문 수상자 선정

진안군 마령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명기)는 9일 ‘제56회 마령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에 앞서 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령면은 면 발전에 혁신 봉사하여 귀감이 되는 면민을 발굴함으로써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1년도부터 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3년도 수상자는 2개 부문으로 △문화체육장 마령 줄다리기팀, △애향장 이명자 씨다.

문화체육장 마령 줄다리기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안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서 연속 3년 종합우승 달성을 기여하고, 2021년 전리북도 도민체육대회 줄다리기 분야 우승, 2022년 나주시에서 열린 전국 줄다리기 최강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진안군과 마령면 체육의 명예를 대내외로 알리는 데 힘쓴 공을 인정받았다.

애향장의 이명자 씨는 198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마령면향우회 입원 및 2020년부터 고문을 맡아 활동하며 애향 활동을 적극 추진해왔고, 고향 향우들의 모임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기부, 찬조금을 아끼지 않았으며 마령 면민의 날 및 체육대회에 항우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분기별 회의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마령면민의 장은 오는 8월 15일 마령면활력센터 마령뜰에서 열리는 광복 제78주년 기념 및 제36회 마령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애향장 이명자



문화체육장 마령 줄다리기팀

참여하며 기부, 찬조금을 아끼지 않았으며 마령 면민의 날 및 체육대회에 항우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분기별 회의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마령면민의 장은 오는 8월 15일 마령면활력센터 마령뜰에서 열리는 광복 제78주년 기념 및 제36회 마령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진안경찰서, 성범죄 예방·청소년 선도 나서

진안경찰서(서장 주현호)는 지난 7일부터 운일암번일암, 남부마이산 등 진안 관내 다중운집장소 위주로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계기간 피서지를 찾은 분들에게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불법촬영 등의 대처 방법 및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하계 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와 더불어 최근 장난을 빙자하여 살인 예고 등을 SNS에 올리는 것이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현호 서장은 “범죄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다중운집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가시적 활동을 통해 선제적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010-272-9417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호자지사 010-8845-9935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의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정읍경찰서, 정신질환자 관리 만전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최근 흥기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 기간 전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생활질서계 직원들은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 위험성과 긴급성이 있는 고위 협정신질환자는 초기 대응부터 정신질환 치료경력 등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응급입원 조치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A병원의 시설 및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사전 대응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